

전통적 가정생활문화에 관한 의식

Attitude Toward Traditional Customs of Family Occasions

정영숙 · 권수애* · 조재순** · 최미숙***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한국고원대학교 가정교육과** · 충청전문대학 식품영양학과***

Chong, Young Sook · Kweon Soo Ae* · Jae Soon Cho** · Mee Sook Choi***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Natl. Univ.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
Chungbuk Natl. Univ.* · Dept. of Home Economics Educ., Korea Natl. Univ. of Educ.**
Dept. of Food & Nutr, Chungchong Junior Coll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attitude toward traditional customs of family occasions - New Year Day, Full Moon Day, a Wedding ceremony, funeral, 1st year birthday, 60th birthday, other birthdays, and a residential move. The number of 1049 respondents in Seoul, Kyungki, Chungbuk are selected for the emperical study. The findings show that the traditional customs, in gernal, should be succeeded at home. However, the attitude toward the traditional customs differ according to age as well as sex, income, social status, and hometown. No suprires the older are more strongly want to succeed the traditions. A survey study on actual family lifes related to the occasions should be followed.

I. 서론

한국인의 가정 생활 및 사회 생활은 지난 30-40년간 사회가 산업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 생활, 식생활, 주생활, 생활에결과 관련된 한국적인 전통적 가정생활 문화가 외래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용됨으로써 가정생활 가운데 점차적으로 한국적 전통 생활 양식을 찾아보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

우리가 한국의 가정생활에 대해 세계에 내놓을 수 있고 문화민족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잊혀져가는 한국의 전통생활문화와 한국적 특성을 지닌 생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생활문화란 우리의 생활양식과 결부된 문화 형태를 의미하며, 대중 문화와 민속 문화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생활 문화의 전승과 보급은 물론이거니와 현대 생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국적 생활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전통적인 가정생활 문화에 관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전승하고 보급시킬 수 있는 방안과 현대 생활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생활 문화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세시풍속, 통과례, 가정행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세시풍속 중에서는 설과 추석, 통과례 중에서는 혼례, 상례, 돌 및 회갑을, 그리고 가정행사 중에서는 생일과 이사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생활 풍습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국한시킨 세시풍속과 통과례, 가정행사에 관련된 유래, 행사, 의복, 음식, 놀이, 언어, 선물등은 문헌고찰을 통해 조사하였으며(정영숙외;1992)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 계승자, 계승에 대한 의식,

행사일의 결정, 의복, 선물, 각종 가정생활품 습의 계승에 대한 태도, 관련 생활언어 지식도 등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알아본 후 조사 대상자의 성별, 연령, 소득, 사회계층, 고향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을 고등학교 남녀 재학생부터 남녀 대학생, 남자 직장인, 20~50대 주부, 60대 남녀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도록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1991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응답자를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고 나서 응답자 스스로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과 면접방법을 혼합하여 이용하였다. 총 1071명이 조사되었으나 이 중에서 무응답이 많은 22부를 제외하고 1049부 (회수의 97.9%)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성 별	%(N=1042)	고 향	%(N=1027)
남	42.7	서울	16.5
여	57.3	강원	2.9
연 령	%(N=1041)	충남북·대전	46.4
20세 미만	21.0	전남북·광주	6.5
20-30세 미만	28.7	경남북	9.0
30-40세 미만	20.8	부산·대구	
40-50세 미만	16.7	경기·인천	17.4
50세 이상	13.3	이북·기타	1.3
월 평균 소득	%(N=976)	주관적 사회계층	%(N=1031)
40-80만원 미만	25.0	상	5.2
80-100만원 미만	20.8	중 상	44.6
100-150만원 미만	22.7	중 하	37.4
150만원 이상	21.5	하	7.8

2. 연구도구 구성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자가 관련 문헌을 고찰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문항을 연구내용별로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가정생활 문화의 계승이나 전통적인 생활문화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가정생활문화를 계승할 책임소재 기관, 계승주체자, 행사 기준달력, 택일, 한복착용, 부조금이나 선물에 관한 의식, 각종 가정생활품 습의 계승에 관한 태도, 생활언어의 지식 정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가정생활 내용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분석과 백분율이 사용되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소득, 사회계층, 성별, 고향)과 가정생활문화 전통에 관한 의식과의 관련은 t-test와 교차 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전통적인 가정생활 문화계승의 책임 소재와 계승 주체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정생활 문화를 계승하여 발전시킬 책임 소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56%)이 정부, 학교, 사회단체, 언론기관, 가정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0%의 응답자가 가정에 그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2). 여기서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의 계승·발전에 대한 책임은 어느 단일기관이나 단체에 있지 않고 정부, 학교, 가정, 사회단체, 언론기관의 복합된 공동책임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일단체나 기관으로는 정부나 학교, 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보다는 가정의 책임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성별, 연령별, 소득별, 고향별, 사회계층별)에 따라 의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전통적인 가정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책임소재에 대해서 성별($P=0.0002$), 연령별($P=0.0000$)로 유

의하게 다른 의식을 갖고 있으며, 소득별, 고향별, 사회계층별로는 의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또,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문화 계승 책임 소재가 가정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2> 생활문화 계승 책임 소재

책임소재	N	%
정부	63	6.0
학교	33	3.2
사회단체	30	2.9
언론기관	24	2.3
가정	311	29.8
모두	581	55.8
계	1042	100.0

응답자의 가정에서 주로 누구에 의해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생활문화가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모라고 응답한 경우가 5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조부모 18.7%, 본인과 배우자 11.1%, 가족원 모두 13.4%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대부분 부모이상의 세대에 의해 가정생활문화가 계승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3%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내 가정생활문화 계승자는 성별에 따른 책임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세대간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문화 계승자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p=0.0040), 연령별(p=0.0000), 소득별(p=0.0023)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향별, 사회계층별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은 여성보다 부모가 계승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여성은 남성보다 본인과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생활 전통문화 계승자에 대해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모두 혹은 부모가 계승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과 배우자나 혹은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소득 규모가 80-100만원 미만과 15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다른 응답자보다 생활문화 계승자가 조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표 3> 가정내 생활문화 계승자

계승자	N	%
조부모	195	18.7 (조부 9.6, 조모 9.1)
부모	547	52.5 (부 28.1, 모 24.4)
본인과배우자	116	11.1
자녀	45	4.3
가족모두	139	13.4
계	1042	100.0

2. 행사일의 결정

설, 들, 생일을 어느 달력을 기준으로 하여 지내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사의 종류에 따라 기준으로 생각하는 달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설이나 본인의 생일과 부모님 생일의 기준은 음력이 양력보다 많고, 들은 양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설에 대해서는 음력기준이 양력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다 약 3.5배 많고, 들을 포함한 생일 행사는 생일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력보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4> 기념하는 행사일의 기준 달력 (%)

행 사	기준 달력 (%)			계
	양력	음력	양력 음력 둘다	
설	21.3	71.2	7.5	100
들	54.3	38.3	7.4	100
본인의 생일	42.2	49.4	8.4	100
부모님 생일	29.4	64.3	6.3	100

기준 달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특성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이 많았다 (표 5). 즉, 음력을 기준으로 하느냐 혹은 양력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조사 대상자의 성, 연령, 소득, 고향, 사회계층에 따라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 가족의 특성별로 기준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5> 행사일의 기준 달력과 관련변수들과의 관계

행사	(%)				
	성별	연령	소득	고향	사회계층
설	0.0110	0.0375	0.0000	0.0060	0.0001
돌	NS	0.0000	0.0000	NS	NS
본인의 생일	NS	0.0000	0.0000	0.0001	0.0001
부모님의 생일	0.0213	0.0000	0.0000	NS	0.00002

* 숫자는 유의수준을 나타냄
 ** NS는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냄

다음으로 이어나 회갑 또는 결혼하는 날을 특별히 정하는 것에 관한 의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이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식을, 그리고 약 10%의 응답자는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표 6> 행사일을 특별히 정하는 것에 대한 의식

행사	(%)					
	대단히 좋다	좋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나쁜 편이다	대단히 나쁘다	계
이사	12.2	39.9	36.8	7.4	3.7	100
회갑	13.7	43.7	31.8	7.0	3.9	100
결혼	19.7	44.9	25.7	6.1	3.6	100

특히 결혼식날을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60%의 응답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니어도 상관없거나 또는 아니어야 좋다고 응답해서 결혼식 요일 결정에 있어 휴일 이외의 다른 날에 대해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결혼식의 요일에 관해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어나 회갑, 결혼을 할 때 특별한 날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성별, 연령별, 소득별, 고향별, 사회계층별로 유의차를 알아본 결과(표 7) 연령별, 소득별, 고향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별과 사회계층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별한 날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는 연령과 소득, 그리고 고향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행사일을 특별히 정하는 것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

행사	성별	연령	소득	고향	사회계층
이사	NS**	0.0001*	0.0140	0.0355	NS
회갑	NS	0.0000	0.0001	0.0381	NS
결혼	NS	0.0000	0.0000	NS	NS

* 숫자는 유의수준을 나타냄
 ** NS는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냄

3. 행사시 한복 착용에 관한 의식

설날, 추석날, 가까운 집안 결혼식, 돌, 회갑 및 생일, 이사한 집 방문, 상례 등 여러 행사에 임했을 경우 한복착용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알아보았다(표 8). 설날과 추석에는 한복을 입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현저히 높았고 가까운 집안의 회갑과 결혼식에는 한복착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상례시에는 그 견해가 거의 반반을 나타냈고, 가까운 집안의 돌과 생일, 이사한 집 방문시에는 가능한 한복을 입지 않는게 좋다는 견해가 높았다. 한복착용에 관한 의식은 응답자의 특성별 즉, 성별, 연령별, 소득별, 고향별, 사회계층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한복착용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의식이 다르지 않으며 다만 행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행사 종류별 한복착용에 관한 의식

행사	반드시가능한 그제 가능한 절대로					계
	입음	입음	그렇다	입지	입지	
				않음	않음	
설 날	23.0	66.4	9.1	1.1	0.4	100
추 석	18.4	61.9	17.1	2.3	0.3	100
집안결혼식	9.5	35.2	41.6	12.4	1.2	100
집안 돌	3.5	14.9	54.9	24.4	2.3	100
집안회갑	25.5	42.9	23.0	7.5	1.1	100
집안생일	3.6	13.6	55.0	23.0	4.8	100
이사집방문	1.8	5.6	39.9	36.8	15.9	100
상례	12.8	18.6	37.6	20.8	10.2	100

4. 행사 종류별 부조금 또는 선물에 관한 의식

결혼, 상례, 회갑, 돌, 생일 및 이사에 참석시 부조금이나 선물을 하는 의식을 조사하

였다(표 9).

<표 9> 행사 종류별 부조금 또는 선물에 관한 의식 (%)

행사	꼭 해야 한다	가능한 하는편 이 좋다	가능한 그저 그렇다	가능한 절대 하지않 는편이 좋다	가능한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계
결혼	36.6	55.1	4.8	2.8	0.7	100
상례	38.8	50.8	6.7	2.7	1.0	100
회갑	29.3	55.6	9.4	4.9	0.8	100
돌	21.6	57.0	15.5	4.9	1.0	100
생일	11.6	57.8	21.4	6.9	2.3	100
이사	8.5	53.	27.6	8.5	2.4	100

결혼(91.7%), 상례(89.6%), 회갑(84.9%), 돌(79.6%)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조금이나 선물을 해야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으며, 생일(68.4%)과 이사(61.5%)시에도 2/3 정도의 응답자가 부조금이나 선물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정생활 중 경사에는 서로 축하해주고 애사에는 서로 위로해주는 풍습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조금이나 선물에 관한 의식은 조사대상자의 특성별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비슷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월 평균 부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응답자 440명 중에서 3만-5만원 이하가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만-10만원 이하(27%), 1만-3만원 이하(22%), 10만원 이상(12%), 만원 이하(4%) 순이었다.

5. 가정생활문화의 계승에 관한 의식

<표 10>은 설, 추석, 혼례, 상례, 돌, 회갑, 생일, 이사와 관련된 여러 생활풍습의 계승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설과 추석에 차례 지내는 풍습, 추석에 성묘하는 풍습, 부모 회갑잔치, 생일날 미역국 먹는 풍습 등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또는 가능한한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혼인시 사주보내는 풍습, 혼인시 예단하는 풍습, 돌떡 받고 선물하는 풍습, 이사시 팔죽·팔떡 돌리는 풍습 등은 약 20% 정도만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계

승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율이 다른 풍습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 생활풍습의 전통성 계승에 관한 의견 (%)

생활풍습의 전통성계승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	가능한 계승해야 한다	형편에 따라할 수도 있다	가능한 하지 않아야 한다	가능한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계
세뱃돈주기	17.2	30.0	45.3	5.9	1.5	100
차례지내기	54.1	34.6	8.1	2.2	1.1	100
추석에 성묘하기	51.8	36.7	9.6	1.2	0.8	100
혼인시 사주하기	12.3	26.3	39.2	16.9	5.4	100
폐백하기	19.8	38.2	32.7	6.9	2.4	100
혼인시 예단하기	6.4	15.4	53.1	19.0	6.1	100
전통혼례식하기	8.5	32.2	52.7	6.0	0.6	100
첫돌찬치	17.3	36.2	43.4	2.8	0.4	100
돌떡돌리기	10.7	31.9	47.5	8.9	1.0	100
돌떡받고 선물하기	6.3	22.9	53.2	15.1	2.4	100
부모회갑잔치	42.3	38.6	17.4	1.6	0.1	100
본인회갑잔치	24.1	26.2	42.9	5.6	1.3	100
생일에 미역국먹기	24.3	42.2	31.3	1.6	0.7	100
이사시팔죽·팔떡돌리기	11.0	25.6	50.1	10.4	2.9	100

<표 11>을 보면 돌상차림은 가능한한 옛 전통대로와 현실에 맞게 차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약 40% 정도로 거의 비슷한 반면, 회갑고임상차리기와 상례행사는 가능한한 옛 전통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0%정도이고, 40%이상이 가능한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표 11> 돌상차림, 회갑상차림, 전통적 상례 절차의 격식에 관한 의견

	%(N=81)		
	돌상차림	회갑상차림	전통적 상례
반드시 옛전통대로	5.3	4.8	6.6
가능한 옛전통대로	37.1	30.6	31.8
상관없다	15.7	12.0	10.7
가능한 현실에 맞게	38.1	47.2	43.6
반드시 현실에 맞게	3.9	5.2	7.3
계	100.0	100.0	100.0

<표 12>는 생활풍습의 전통성 계승 정도에 관해 특성변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12> 생활풍습의 전통성 계승 정도와 관련변수들과의 관계

	성별	연령	고향	소득	사회계층
세뱃돈주기	0.0041	0.0005	NS	0.0041	NS
차례지내기	NS	0.0000	NS	NS	NS
성묘하기	0.0174	0.0008	NS	NS	NS
혼인시 사주하기	NS	0.0112	0.0112	NS	NS
폐백하기	0.0077	0.0000	0.0110	NS	0.0122
혼인시 예단하기	0.0001	0.0000	NS	NS	NS
전통혼례하기	NS	0.0094	NS	NS	NS
첫돌잔치	0.0252	0.0000	NS	0.0402	NS
돌떡돌리기	0.0313	0.0000	0.0041	NS	NS
돌떡받고 선물하기	NS	0.0000	NS	0.0103	0.0164
부모회갑잔치	0.0349	0.0000	0.0006	NS	NS
본인회갑잔치	NS	0.0000	NS	NS	NS
생일에 미역국먹기	NS	NS	NS	NS	NS
이사시 팔떡·팔죽 돌리기	NS	NS	NS	NS	NS
설·추석 전통 음식 먹기	NS	NS	NS	NS	NS
첫돌상차림 방식	0.0144	0.0056	0.0000	0.0000	0.0230
회갑날고임상 차리기	0.0000	0.0046	NS	NS	0.0020
상례 행사	0.0000	0.0048	0.0405	0.0073	0.0224

* 숫자는 유의수준을 나타냄

** NS는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냄

가정생활문화 행사는 전통성 계승 정도에 있어서 연령별로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은 전통적인 생활 문화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유의차를 나타낸 항목은 설날 세뱃돈 주기, 추석에 성묘하기, 혼인시 폐백·예단하기, 첫돌잔치, 돌떡 돌리기, 부모 회갑잔치이었다. 고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혼인시 사주하기, 폐백드리기, 돌떡 돌리기, 부모 회갑잔치이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항목은 설날 세뱃돈 주기, 첫돌잔치, 돌떡받고 선물하기이며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차를 보인 것은 혼인시 폐백하기, 돌떡 받고 선물하기 등이다.

설·추석에 전통음식 먹는 것은 특성변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상례

행사와 첫돌 상차림 방식은 성별, 연령, 소득, 고향, 사회계층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회갑날 고임상 차리기는 성별,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6. 생활언어 지식 정도

생신, 회갑, 이사후 방문, 세배, 상례 등 상황에 맞는 생활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하였다(표 13). 설날 부모님께 세배시 드리는 인사말은 3/4 이상의 응답자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까운 친척의 생신에 참석했을 때의 인사말이나 가까운 친지의 이사후 방문이나 회갑 참석시의 인사말도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를 여윈 상주에게 드리는 인사말을 알고 있는 경우(48.9%)는 다른 때의 인사말보다 낮은 편이었다.

생활언어 지식 정도에 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면(표 14)생활언어의 지식 정도는 소득과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주로 연령이나 고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생활언어지식 정도에 관한 의견

	(%)					
	아주 잘 잘알	잘 알	보통 임	잘 모름	전혀 모름	계 모름
가까운 친척의 생신에참석할때	12.2	45.4	29.3	12.2	0.9	100
가까운 친척의 회갑에 참석할때	10.6	40.7	28.2	18.7	1.9	100
가까운 친지의 이사후 방문할때	12.8	40.8	30.8	14.4	1.2	100
설날 부모님께 세배할때	28.7	47.9	18.1	4.7	0.6	100
부모를 여윈 상주에게	11.9	37.0	20.7	24.1	6.3	100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특성들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적절한 생활언어지식 정도가 높았다. 한편, 고향이 서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지역이 고향인 사람보다 지식정도가 낮고, 여자가 남자보다 상례시 적절한 인사말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생활언어의 지도와 보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생활언어 지식 정도와 관련변수들과의 관계

	성별	연령	고향	소득	사회계층
친척의 생신에 참석할때	NS	0.0000	0.0022	NS	0.0021
친척의 회갑에 참석할때	NS	0.0000	0.0062	NS	0.0005
이사후 방문할 때	NS	0.0000	0.0163	NS	NS
부모께 세배할 때	NS	0.0007	NS	NS	NS
부모여윈 상주에게	0.0320	0.0000	0.0001	NS	NS

* 숫자는 유의수준을 나타냄

** NS는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냄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계승·유지되고 있는 가정행사와 관련하여 세시풍속 중에서 설과 추석, 통과례로서 돌, 혼례, 회갑, 상례를, 기타 가정행사 중에서 생일과 이사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의 계승 발전에 대한 책임은 가정을 포함한 정부, 학교, 사회단체, 언론기관의 복합된 책임이라고 보고 있으며, 단일 책임으로는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가정에서의 전통문화계승에 관한 노력이 기대된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문화계승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다.

또한 설이나 돌, 생일을 지내는 기준달력은 행사내용에 따라 달라서 들은 주로양력을 기준으로, 설이나 생일은 주로 음력을 기준으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생일도 생일대상자와 그의 연령에 따라 생일의 기준이 되는 달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서 가족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나 회갑, 결혼날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절반 이상이나 소수는 부정적으로도 보고 있었으며 연령과 소득에 따라서 각 행사일을 특별히 정하는 것에 대해 다르게 의식하고 있었다.

가정행사 참석시 한복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설날이

나 추석같은 명절에는 가능한 입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고 회갑날에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 상례, 회갑, 돌, 생일 및 이사 등 행사시 부조금이나 선물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이나 가족특성에 관계없이 경사에 축하해 주고 애사에 위로해 주는 관습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생활언어는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통해서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각 행사에 관련된 전통적인 생활풍습과 관련하여서는 풍습에 따라 계승의식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달랐다. 설과 추석에 차례지내는 풍습, 추석에 성묘하는 풍습, 부모 회갑잔치, 생일날 미역국 먹는 풍습 등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또는 가능한한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혼인시 사주 보내는 풍습, 혼인시 예단하는 풍습, 돌떡 받고 선물하는 풍습, 이사시 팔죽·팔떡 돌리는 풍습 등은 가능한한 계승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율이 다른 항목보다 높았다. 돌상차림은 가능한한 옛 전통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현실에 맞게 차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비슷하나, 회갑 고임상 차리기와 상례행사는 가능한한 옛 전통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능한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보다는 조금 많았다.

각 행사에 관련된 고유한 생활풍습의 계승 정도에 관해 응답자의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연령에 따른 유의차가 커서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풍습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형편에 따라 하거나 가능한한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경우가 많아서 전통적인 생활문화계승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풍습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으며, 한편 계승의식에 합리적 사고가 반영되어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연령 다음으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전통성을 계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

다. 이는 가정의 행사를 주로 여성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현실에 맞게 조화하여 살아가려는 의도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은 소득이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전통의 계승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옛 것이나 고유의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는 그 의미나 유래 등은 전통성을 그대로 알려주고 계승은 현실 생활에 맞게 지켜나가되 개인이나 가족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급방안 및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생활내용으로 조사한 의식들이 실제 각 가정생활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실증연구가 후속연구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정영숙, 권수애, 조제순, 최미숙(1992), 한국 가정의 전통적 생활문화에 대한 고찰, 충북 가정학회지 1(1).
- 최재석(1977), 제주도의 혼인의례와 그 사회적 의식, 아세아 여성연구 16호.
- 최재석(1987), 촌락사회에서의 혼인의 변화, 아세아 여성연구 26호.
- 최종호(1988), 한국인의 회갑의례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순(1985), 혼·상·제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춘미(1970), 가정의례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도기(1981), 혼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영(1973), 농촌가족의 혼인관행, 호성여대 여성문제 연구 제3집.
- 김현영(1985), 전통혼례의 사회교화적 의의,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문숙(1989), 세시풍속에 관한 주부들의 관심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희(1984), 전남지방의 결혼관행에 대한 의식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혜(1976), 한국 혼인 풍속 연구, 성신여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만(1979), 조선시대 혼속에 관한 일 고찰,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인(1987), 한국전통혼례의 가족사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은희(1971), 산속의 연구: 충북지방 산속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길표(1989), 도시주부의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와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 이정우, 김명나(1990),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